

노사발전재단, 이동노동자 중심 봉사단 ‘그늘봉사단’ 발족, 노사정과 함께 폭염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 노사정 협력 기반 실천형 ESG 캠페인, 폭염취약계층 보호에 앞장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7월 4일(금) 경기도 고양시 롯데택배 은평터미널에서 이동노동자가 중심이 된 자원봉사조직인 ‘그늘봉사단’ 발족식을 열고, 폭염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폭염예방키트를 전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늘봉사단은 △노사발전재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택배산업본부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롯데택배 대리점연합회가 참여한 이동노동자 중심의 노사정 사회공헌 협의체다. 특히, 택배노동자 등 지역을 순회하며 일하는 이동노동자가 스스로 공동체의 이웃이 되겠다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원봉사 주체로 나섰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반복되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반지하·옥탑방 거주자, 거리노숙인, 폐지수거 어르신 등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냉방 장비, 의료 접근성이 부족해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늘봉사단은 이들을 직접 찾아가 폭염예방키트와 생수를 전달하며, 폭염 대응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현장 중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동노동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마주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이 활동은, 노동자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를 넘어 공동체에 먼저 다가가는 이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노사정이 함께 만든 이 자발적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늘봉사단은 앞으로도 폭한기와 미세먼지 등 계절별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범위를 넓히고, 지역 곳곳에서 노사정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소통홍보팀	책임자	팀 장	박근우 (02-6021-1041)
		담당자	대 리	김현아 (02-6021-1022)



1 추진배경

- ☐ 기후위기 장기화로 인해 폭염 일수 증가, 폭염 취약계층 온열질환 위험 심화
- ☐ 폭염 취약계층 대상으로 폭염예방 키트를 전달하여 건강과 안전 증진

2 추진내용

- ☐ 일시: 2025. 7. 4.(금) 9:00~9:30
- ☐ 장소: 롯데택배 은평터미널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53-3
- ☐ 내용: 노사정이 협력해 폭염 취약계층에게 예방키트를 전달하는 공동 캠페인 전개
 - ① ‘그늘봉사단’ 발족식 ※ 봉사단: 방정인 단장 외 50여명
 - ② 노사발전재단, 한국노총 → ‘그늘봉사단’ 폭염예방키트·생수 전달식
 - ③ 폭염 취약계층 대상 키트 전달(택배기사 협조)
- ☐ 대상: 서울 은평구 일대 100명
 - 그늘봉사단(택배노동자)이 폭염예방키트와 생수를 폭염취약계층(쪽방촌, 반지하, 옥탑방, 노숙인, 폐지줍는 어르신 등)에게 직접 전달
- ☐ 참여자: 노사정 관계자 14명, 봉사단 약 20명

인원	단체명	성명	직책
1	한국노총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
2		송명진	사무국장
3		박현호	프리랜서 권익센터 센터장
4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임성호	본부장
5		이은주	총괄실장
6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김사성	위원장
7		하충효	대외협력본부장
8		김다혜	사무국장
9	롯데택배 대리점연합회	서성길	회장
10		이형구	사무국장
11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
12		박근우	소통홍보팀장
13		김현아	소통홍보팀 대리(사회공헌)
14		황혜원	운영지원팀 과장(재난·안전)